

【원료약품의 분량】 1캡슐중

홍화유 (USP)	333,33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KP)	6,67mg
피리독신염산염(KP)	0,67mg
• 첨가제(보존제): 파라옥시벤조산메틸(KP)	0,05mg
• 첨가제(보존제):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KP)	0,005mg
• 첨가제(동물유래): 젤라틴(기원동물: 소, 사용부위: 피부)	
•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적색 3호, 황색 203호	

【성 상】 유백색의 유상물질이 든 주황색 타원형 연질캡슐제이다.

【효능·효과】 비만증, 당뇨병성대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의한 지질대사개선

【용법·용량】 1회 3캡슐을 1일 3회 식전 30분에 복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 구성 성분에 과민증 환자
- 2)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 3)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 3)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성분의 의약품을 이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피리독신에 의하여 말초에서 레보도파의 탈탄산화를 촉진시켜 레보도파 작용이 감약(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함께 사용 시 신중히 투여한다.
- 4)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 5) 이 약은 황색 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부 작 용

- 1) 소화기계 :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2) 피부 : 발진, 발적(종혈되어 붉어짐)이 나타날 수 있다.
- 3) 이약의 투여에 의해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출혈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4)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약을 투여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E를 투여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5) 이 약에 함유된 피리독신을 1일 500mg-2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신경병적 증상(neuropathy : 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 2)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 3)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당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 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5.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단단히 마개로 막아)하여 보관할 것.
- 3) 오용(잘못 사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와 교체하지 말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포장단위】 자사포장단위

- ※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이며,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 설명서개정년월 이후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www.yppharm.co.kr)의 제품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시면 안 되며, 설명서를 꼭 읽으시고,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설명서개정년월 : 2012년 10월

제품문의 : (032) 812-8356



제조발매원

영풍제약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리로 333

일반의약품

비만증 복부비만 체지방 감소

제니폴 연질캡슐

제니폴연질캡슐은 이런분들에게 좋습니다.

비만증 복부비만 체지방 감소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

Diabetic lipid-lowering action

Reduce abdominal fat

Reduce body fat

요요현상 등의 방지

부작용에서 해방

당뇨성분대성 고콜레

스테롤혈증에 의한

지질대사개선



Manufactured by

YOUNG POONG PHARMACEUTICAL CO., LTD.

Nam Dong Industrial Complex, KOREA.



비만증 복부비만 체지방 감소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

비만은 습관적인 과식, 운동부족, 체질성 유전 등에 의하여 체내에 지방이 쌓여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성 뇌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니폴연질캡슐은 종래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제제로서 비만(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만치료제입니다.

중년여성의 44%가 '복부비만' - 보건복지부 조사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 10명중 4명 이상이 복부비만이며 3명 가량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관절염을 많이 앓는 등 만성질환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만2천가구(여성 1만4164명)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 및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의 성인여성 44.1%가 복부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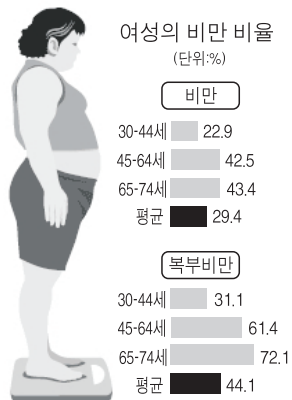
체중이 정상범위를 넘어선 비만여성은 29.4%나 되었습니다.

특히 45~64세 여성의 61.4%와 42.5%가 각각 복부비만과 체중비만으로 나타났으며, 65~74세 노인은 더 심해 72.1%와 43.4%가 복부비만과 체중비만이었습니다.

75세가 넘으면 비만인구가 줄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복부비만은 25.2%에 그쳤고 체중비만인 남성은 32.4%로 여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여성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30~44세가 37.1%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여자는 80cm, 남자는 90cm 이상이면 복부비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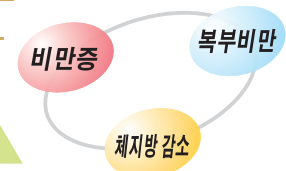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건강 통계(2001년 기준)

표준체중 계산법
 브로카 공식에 의한 표준체중

$$=(\text{신장}-100) \times 0.9$$

 비만도 $= (\text{현재체중} - \text{표준체중}) / \text{표준체중} \times 100(\%)$
 20~30% 경도 비만
 30~50% 중증도 비만
 50% 이상 고도 비만

부작용 없는 체지방 감소제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 지질대사 개선



제니폴 연질캡슐의 특징

- 제니폴연질캡슐**은 말초 지방조직에 직접작용하는 천연 성분의 비만치료제이므로 일정수준의 치료 후 복용을 중지하더라도 요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제니폴연질캡슐**은 체내 지방합성과정을 촉진하는 중간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 제니폴연질캡슐**은 에너지를 내는데 이용하는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소모비율에서 지방의 소모율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으로 더욱 효과 적으로 체지방 및 복부비만을 개선합니다.
- 제니폴연질캡슐**은 천연성분이므로 기존에 나와있는 많은 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사하제, 이노제 등)를 복용후 나타나는 두통, 혈압상승, 불면증, 구토, 증상 등의 부작용이 없으며 효과적으로 체중조절을 유도 하므로장기적인 비만치료에 적합한 제제입니다.



식사요법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

- 수분이 많은 조리를 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국, 죽).
- 가공된 식품보다는 직접 조리한 것이나 신선한 식품을 먹는다.
- 약간의 지방은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 구미가 당기지 않도록 향신료, 조미료는 제한한다.
- 튀김요리를 할 때는 껍질을 얇게 입힌다. 중국요리나 튀김보다는 백반 및 구이, 찜 등을 선택한다.
- 잡곡밥 위주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한다.
- 단백질은 육류보다는 생선으로 섭취하고 튀긴 것보다는 석쇠에 굽도록 한다.
- 소금 섭취를 줄인다. 커피, 홍차에도 설탕을 넣지 않는다